

오담 승리의 희망

자유로운 주장 | 거침 없는 발언 | 빈약한 자본

<http://cantabile.mireene.com>

2면
대선평집
저 잡아주세요!

3면
그러니까

5면
우리들의 스캔들
을 꿈꾸며

6면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선언



8면
[연재]
어느학교로부터의
편지

더
투덜리즘: 무가치종들 여배이사 설\불편불만 대안의 짬뽕\투덜리스트 카펫

청소년 알바를 둘러싼 시선들

알바는 돈을 버는 데 생계비와 기타 생활비용이 나뉘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대략 생계비를 제외한 돈을 얻기 위한 임시직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 생계비와 다른 비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모호하지만, 그게 알바를 특수한 노동(불완전한)으로 취급받게 하는 건 명확한 사실이야.

이런 알바를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하고 있어. 여기서 청소년은 만19세이하라 치자구. 학교를 다니든, 탈학교청소년이든 '알바'에 대해선 비슷한 시선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선, 공부해야할 나이에 무슨 아르바이트냐? 라는 반응.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알바의 규정에 관한 질책이 들어있어. 너희에게 밥먹고, 공부하고, 잡자는 이외의 비용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게지.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공부이므로, 현실의 즐거움은 미래를 위해 유예해야한다는 논리와

맞닿아 있을 거야. 대체 얼마나 더 큰 미래를 보장해주려고 그렇게 학교에 얽어매려는 걸까.

또한 돈을 버는 것도 그것을 '쓸 줄 아는' '성인'이어야 가능한 거고, 청소년에겐 그 자격마저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방학 중 아르바이트라든지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더라구.

하지만 이런 것보다 더 꽤썸한 건,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주된 이유는 - 바로 알바를 하는 청소년을 대하는 업주와 사회의 태도야. 알바가 하나의 사회경험이니 힘들게 일해야 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 아니라는 관념과 결합해서 청소년 알바는 돈을 적게 받아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버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겠다는 류의 이야기와 짬뽕시켜 너희를 고생시켜 주는 우리는 너희를 성숙하게 만들고 있으니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한다는 식의 선도의식은 역겨울 따름이야.

왜 항상 청소년은 뭔가 부족하고, 고생을 해서라도 뭔가를 더 익혀야 하는 존재일까? 청소년에 대한 이런 방식의 인식과 대접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업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너무 분명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가로채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거지. 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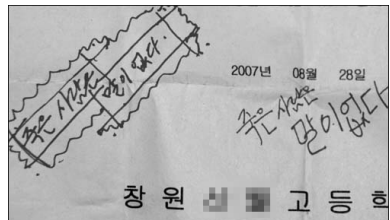
엔 분명 최저임금법이란 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고, 2007년 현재는 시간당 3480원이 상을 받아야만 해. 이 글을 읽는 알바경험자들 중 이만큼을 받으면서 일한 사람 얼마나 있어? (굳이 통계 제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검색해보. 기사 주루룩 뜨니까.)

그리고 설사 청소년들이 돈 이외의 뭔가를 얻는다면 그건 업주들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획득하는 거야. 알바를 통해서 분명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회의 모습을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경험이 약자에게서는 더 많이 가로채도 된다는 현실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어?

청소년 저임금 알바는 청소년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냐. 대학생들에게 더 후진 조건을 제시하고 그게 싫으면 청소년 알바를 쓸 테니 관두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지니까. 이건 또 대학생 알바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비정규직의 문제로 이어지고(그냥 알바 쓸테니 너 나가), 정규직 또한 마찬가지로(비정규직 쓸 테니 너 나가). 일하는 조건이 나빠지더라도, 잘리는 걸 두려워하면서 자기 일자리를 지키려고 끔뎀 앓아야 하잖아. 결국 청소년 저임금 알바야말로 바로 자신들이 미래를 저당 잡게 만드는 사슬이야.

돈을 버는 데는 특정한 이유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니까 버는 거야. 그게 이 사회가 가르치는 진실이고 가장 솔직한 모습이잖아. 괜히 도덕적인 척 양의 탈을 쓰고 '이게 너희를 위한 거야' 속삭이며 알바를 금하려 하는데, 이런 금지 때문에 이들의 권리는 더 쉽게 침해당하고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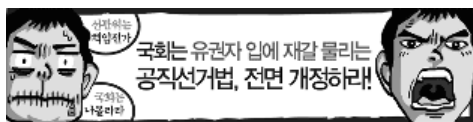
알바 할 권리, 알바해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권리 - 포기하지 말자고!



▲ 8월 28일 창원에서 자살한 학생이 남긴 메모. 이 학생은 집안 경제가 어려워 알바를 했으나,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아자 안하고 알바를 하려면 전학 가라는 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특별 기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저 잡아 가세요

얼마 전 참여연대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네티즌 193명을 모집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직선거법93조’와 ‘선관위선거UCC운영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나 또한 헌법소원 취지에 많은 부분 공감하여 청구인단으로 등록했다. 등록을 하면서 나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권리, 즉 청소년의 선거운동보장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얼마 후 통화하게된 참여연대의 담당간사는 참여연대 회원이냐는 첫마디로 통화를 시작하며 내가 청소년이란 것에 신기해 하면서도, 내가 요청했던 바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 정당법 등 다른 법안까지의 논의확대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이미지
<http://freeucc.jinbo.net/>

일정 나이를 넘어서는 순간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선거제도의 문제는 선거연령 인하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관련 선관위의 기본 지침은 밥 많이 먹으면 정치적 견해가 생긴다는 식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유권자의 권리 찾기에는 발

벗고 뛰어다니는 제 시민사회 단체조차, 유권자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에는 관심조차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보다 많은 청소년이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 청소년은 어른들이란 기득권력에 밀려 권력적 소수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결코 소수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니다. 바로 민주노동당이 그러하다. 대한민국 공당사상 처음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곳이 노동자·농민·빈민·중소상공인·학생·소수자들의 정당, 민주노동당! 대중정당 민주노동당이다! 민주노동당에는 지금도 수십여 명의 청소년 당원들이 있고, 당직공직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어 청소년이 대의원, 중앙위원을 지내며 당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청소년 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세워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사랑한다.

9명밖에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한미FTA 저지를 위해 농민들과 함께하고, 미국의 전략기지화되는 대추리에서는 행정대집행의 마지막 순



▲ 민주노동당은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하고 캠페인도 여러 차례 벌였다.

으며,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이랜드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찰들에게 짓밟히면서까지 함께하였고,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를 짓겠다는 정부를 가로막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7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고통받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싸운다.

나의 지지는 정당하다!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할 지라도 내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함께 잘 사는 민중의 세상을 위한 민주노동당의 전진은 멈추지 않기에 부끄럽지 않다.

[김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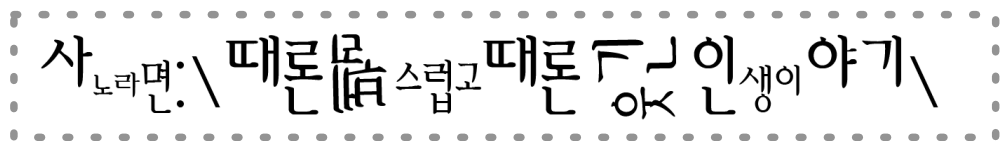
강요와 폭력의 야영

이건 야영체험기라고나 할까? 우리학교는 기말고사를 보고 바로 다음 날 XX수련원으로 야영을 갔다. 말 다들 시험후유증으로 지친 모습으로, 학교에선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러 재미있게 갔다오라 했건만, 그때는 스트레스와 피곤 짜증이 더 쌓여 돌아올 줄은 몰랐다.

처음 수련원에 도착해서 예상했던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소리치며 교관들은 우릴 반듯이 줄을 세우기 시작했다. “반듯이 서! 조용히 해!” 아직도 말투, 억양 생생히 기억난다. 우리는 그 소리에 매우 불쾌하여 안 그래도 짜증났던 기분을 입으로 토해냈다.

“근디, 왜 저래, 어이없네” 한마디로 우린 반항을 한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교관들 중 마이크를 들고있던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마이크를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어이

가 없었다. 그로 인해 우리 학생들 역시 반항심이 더 깊어졌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힘든 건 우리뿐이었다. 떠돌고 반항한 대가로 벌을 받았는데 단순하지만 무서운 ‘앉았다일어났다’ 연속해서 100번이상이었다. 기본



은 매우 짜증나고 속으로 두고보자!라고 이를 악물며 고통을 견디고 견디면서 끈기있게 벌을 받았다. 이렇게 고통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레프팅도 타고, 산도 타고, 레펠도 타고, 유격훈련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했지만 그 사이 사이마다 벌과 강요 등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 훈련 도중에 우는 애도 있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애도 있었다. 2박 3일 동안 고작 이런 체험을 하려고 6만원이 넘는 돈을 냈다니!! 미치도록 아깝고 짜증이 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놔 졸 짜증나는 거. 휴학생은 대낮에 나가면 학생도 백수도 아니더라 말이 지. 내가 왜 휴학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들이 알거나 하시나구요~ 대낮에 공공시설 이용하면 탈선이난 말이다. 선을 넘긴 뭘 넘어. 나처럼 바른생활청소년이 또 어딴다고. 동사무소에 사복입고 낮에 가면 '~해라'체로 반말씩씩 날려가며 완전 개무시하더라. 내가 그래서 요즘은 그냥 '비청소년'인 척 살고 있잖니. 아놔 그래도 청소년 아닌 척만 하고는 못살겠더라. 청소년보호법인지 규제법인지 완전 족쇄야. 나처럼 신분불분명한 사람은 학교 나와있어도 '완전히' 나와 살지는 못해. 학교에 있건 없건 '학생'인 척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학교 안 다닌다고 학생 혜택은 못 받는데 또 청소년이라 규제는 당해. 낮에 버스만 타도 기사아저씨 시선부터가 달라. 아 그 눈빛~ 그거지. 다른 애들 다 학교 가있을 시간인데 넌 왜 밖에 나와 있느냐, 너 나쁜 애구나, 그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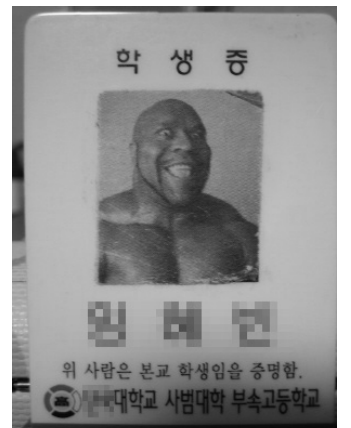
예를 들어, 영화를 본다고 쳐봐. 학생증 없으니까, 영화도 일반요금 내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요금 내니까 성인 영화를 볼 수 있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 학생증은 없는데 얼굴은 어려 보여. 민증은 있을 테니 확인하겠다는 거지. 민증 내래.(민증 아예 만들지 말걸 그랬나;) 결국은 일반 요금 내고 15세

영화 봐. 이거 어디 부르주아 아니면 살겠어?-- 그러니까 비정규약법 저주 아래 청소년이란 이유로 일은 똑같이 하고 돈은 훨씬 조금 받으면서 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다는 거정.

참, 그것도 있구나. 난 휴학했으니까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쳐. 좀 유식한 말로 탈학교 청소년. 근데, 학교 다니는 청소년도 때론 탈학교 청소년 취급을 당하더라고. 대안 학교 청소년들을 생각해봐. 다른 학교들에 비해 좀 일찍 끝나거나, 자유로워. 그래도 학교 다니는 건 같잖아. 근데 학교 끝나고 시내 한 바퀴 돌았다 하면 여기 저기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거든. 내가 휴학하고 켈 많이 들었던 말, "학생'인 거 '같은데'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그 말이 또 들리는 거지.

내 얘길 좀만 더 하자면. 난 휴학하고 '학생 아닌 청소년 신분으로' 사회의 규제를 받고 '학생이었던/일 청소년으로' 나도 모르게 생긴 학교로부터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지쳐 살아. '학교 나왔으니까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머리 좀 바꿔보고 싶어도 괜히 별생각 다드는 거지. "학교 나오면 저딴 식으로 풀어지니까 두발규제해야 하는 거야" "저래서 재가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있지" 따위. 그거야 생각 나름이라고? 쳇. 학생 아닌 척해도 학교 12년 다닌 습관 아닌 습관들 때문에 학생 아닌 척이 안돼. 학교는 '인성교육'이란 이름하에 수동

적이고 유연하게 사는 법은 알려주지만 정작 사회를 알게 하거나 실질적 사회성을 길러주진 않거든. 학교 밖에 있으면서도 학교 안에 갇혀 살고 있어. 학생을 통제하려 만든 '학생다움'에 매여 있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닌데도 나이가 학교 다닐 나이다 보니 '학생다워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어. 어떻게든 저항해보려 하지만 말야.



▲ 이런 학생증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 (출처 : 인터넷 블럼 저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안 다니는 내가 부럽겠지. 가끔 학교 가서 친구들 보면 힘겨워하는 모습들에 마음이 아파. 그치만 때론 학교가 그립기도 해. 그곳의 일상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서. 하지만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을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진 말아줬으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가 싫다고 하면서 학교를 닦아가는 것 같아서 슬퍼. 휴학하고 보니, 학교는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더라.

[채씨]

2면에서 계속

그날 저녁 반친구들과 힘들었던 점을 얘기를 나눴다. 친구 중 하는 말이 "여기서 배운게 뭐냐고? 인내심? 협동심? 집의 소중함? 부모님에 대한 효심?" 이런것들을 배웠다고 해도 기억에 남는 건 욕설, 낮고 명령하는 목소리, 체벌, 강요 등등 참 좋은거 배우고 간다고 말한다. 난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또 동의한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다. 마지막 퇴소식날 드디어



▲ 학교, 수련원, 곳곳에 만연한 군사주의적, 권위주의적, 폭력적 문화. 언제쯤 다 없앨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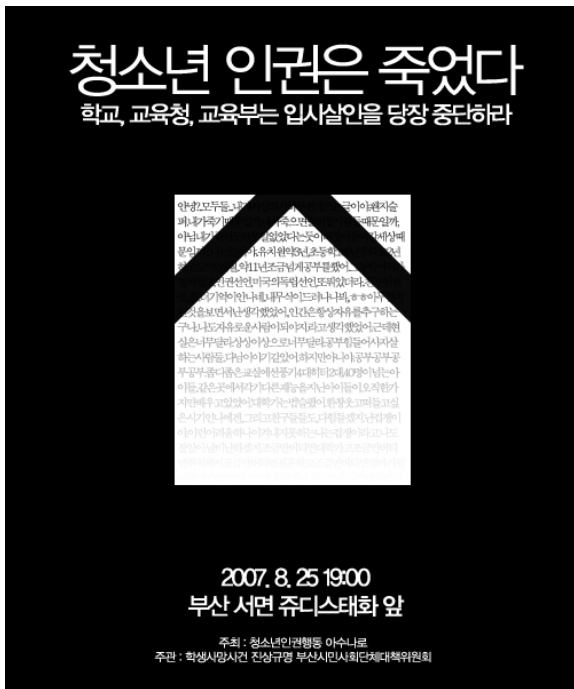
어 끝이다!라고 행복해하며 강당으로 모였다. 하지만 그곳엔 두세명의 교관들만 있고 다른 교관들은 어디에도 안보였다. 그 이유는 잠시후 알게 되었다.

수련원의 원장인듯한 사람이 하는 말 "학생들 중 몇명이 훈련받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부모님에게 보내고 부모님께 전화해서 야영 때 생긴 불평불만을 말했다"는 거다. 부모님들은 그래서 전화해 항의를 하고 난동을 피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에 조금 놀랐다. 부모님들의 힘이 이렇게 강했었나? 또 조금 미안하기도 했다. 마무리 안좋았지만 끄적했던 2박3일의 야영은 끝이 났다.

정말 기분 나빴던 야영, 힘들고 짜증났던 야영! 기억하고 싶지않다. 물론 야영의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강요와 체벌 고통이 있는 야영은 싫고 있어서는 안된다. 진심으로 즐기고 웃으며 체험할 수 있는 야영이 필요하다.

[noname]

"청소년인권은 죽었다"



추모제 준비

추모제를 하기 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12일에 청소년인권 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모임을 갖고, 추모제 순서와 퍼포먼스 계획을 짰다. 피켓도 만들고..

나는 웹자보와 전단지를 만들며 여러 날을 보냈다. 생각해보니 직접 만든 건 없고 다 수정해서 썼는데, 시간은 왜 그리 많이 걸렸던지 참.. 현수막은 웹자보와 비슷하게 만들어 쓰기로 했다.

추모제가 있기 3일 전인 수요일 아침에 암암과 나는 부산교육청 앞으로 갔다. 처음으로 해보는 일인시 위. 전혀 긴장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얼마 되지 않아 교육청 경비가 귀찮게 굴었다. 실실 웃으면서 "나도 체벌금지 이런 것 찬성한다. 나도 학창시절 때 많이 맞았다. 막으려는 것 아니다. 그런데 학교 어디인지 좀 말해달라"하고 말하는 모습이란 참...(웃음) 암암과 나 둘이 같이 피켓을 들고 있던 적도 많았는데, 장학사들은 암암만 집요하게 공격했다. 왜 그런거지..

추모제 당일

사무실에 들렀다가 YJ와 함께 전단지 인쇄를 하러 서면으로 갔다.

인쇄를 하고 퍼포먼스에 쓰일 꽃을 산 뒤, 사람들을 만나 같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를 했다. 나는 너무 축스러워 제대로 나눠주지도 못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이카로스가 보다 못해 결국 나와 역할을 바꾸었다. 다시 전단지를 나눠줄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또 MH가 대신 나눠줬다. 나 정말 왜 이래..

추모제

장학사들과 일부 교사들을 막기 위해 산가면과 마스크. 아무도 가면은 쓰려 하질 않았다. 참

살이가 "그래도 사온 사람이니 혼자라도 가면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나도 결국 가면의 불편함에 굴복, 마스크를 썼다.

빔프로젝터 연결, 화면에 "Socialist International"의 로고와 "자유, 평등, 연대"라는 문구가 나왔다. 이번 추모제에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준비해 둔 것. SI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분이 있을지



▲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틈바구니에서 강제학습을 당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표현 중.

모르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 '장미꽃을 들고 있는 손' 로고를 참 좋아한다.

첫 번째로 간디학교 몸짓패 '퍼라'의 공연. '불나비'와 '희망은 있다'라는 음악에 몸짓을 보여줬는데,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정말 멋졌다. 공연을 보고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

참교육학부모회 연대발언 후에 퍼포먼스가 있었다. 메신저회의도 하고 꽤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괜찮았을까? 전교조의 연대발언 후에 김의 자살한 청소년의 유서낭독. 정말 낭독을 잘했다. 음악도 좋았고.. ㅋㅋ

그 다음 YJ의 공연. 더콰이엇의 음악에 가사를 쓴 자작곡이었는데, 사람들 반응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 다음에 부른 '학교에서 배운 것'은 약간 가사를 빼먹기도 했지만.

부산 청소년 반축제 기획단에서 발언이 있었는데, 그 동안 나는 '별 별이야기' 상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상이 나오지 않아 당황. 사회자에게 한 번 더 발언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했고, 다행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당황하며 문제를 고치느라 두 발언은 잘 듣지 못했다. '별 별이야기' 중 '사람이 되어

라' 상영. 지금도 학교에선 많은 학생들이 '대학가서 사람 되기 위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참고 밤늦게 까지 공부한다. 언젠가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추모제를 100%로 완성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영상 상영 이후 외계의 발언 다음에 MH의 통기타 공연이 있었다. 멋졌다. 사람들 반응도 좋고.. 나도 악기 하나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공굴리기 퍼포먼스. 초라하기 짝이 없는 페트병을 보며 약간의 죄책감(?). 밤마 씨가 공을 굴려 '체벌', '입시' 페트병들을 쓰러트렸다. 그후에 '꿈꾸지 않으면'을 다같이 부르며 끝내려고 했는데 다들 가사를 모르는 상황. 가사를 준비해 나눠줬어야 했는데..ㅠㅠ 그냥 음악만 틀고 끝냈다.

추모제가 끝나고 난 뒤, 반축제 기획단과 함께 뒷풀이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씩은과 함께 집에 오면서 추모제를 생각해보았다. 5점 만점에 4.5점? 몇몇 실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훌륭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이런 일을 준비해본 것이기도 하고.. 그 후 며칠간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늘품]

(* 늘품님은 "청소년인권은 죽었다" 행사준비에서 많은 역할을 맡았던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양희창 글
장혜선 곡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헤는 맘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낮은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 알고 있네 우리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들의 스캔들’을 꿈꾸며

‘우리들의 스캔들’은 청소년 소설이다. 본인은 이 글에서 청소년소설을 ‘청소년의 눈으로’ ‘청소년의 이야기를’ 풀어낸 소설이라 하고 싶다. ‘우리들의 스캔들’은 ‘성장통’인 동시에 ‘문제작’이다. 특히, 학교의 현실을 지적해내는 문제작이다.

책 내용 중, 학교와 주변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자 주인공의 답임은 종이를 나누어 주며 말한다.

“지금부터, 나눠 준 종이에 불량 서클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적어라. 이런 얘기를 적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고민 따위는 하지 마라. 아는 건 다 적어라. 너희는 아직 어리고 학생일 뿐이다. 교사인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 책임이 있고, 학교는 그럴 능력이 있다. 모든 걸 솔직하게 적어라.”

작가는 이 몇 줄의 말로 학교가 내뱉는 무언의 폭력을 폭로한다. “너희는 아직 어리고 학생일 뿐이다” — 이 말을 목소리를 간 채 한다고 생각해 보라. 사랑해서 보호해주려는 모습보단 권위적 모습으로 보인다. 더구나 강제적으로 고자질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 정확하게

수 있는 것은 처벌뿐이다.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깨닫고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이상적 교육의 목적은 찾아 보기 힘들다.

작가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종이’를 작성할 때 — 물론 누구도 쓸 말이 없고 쓸 수 없다 — 한 학생의 휴대폰이 울리자 답임은 나가라고 한다. 그 학생(인호)은 작게 ‘씨팔’이라고 말한다. 답임은 그 아이를 불러서 묻는다. “방금 뭐라고 했지?” 학생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자 따귀를 때린다. “다시 한 번 묻겠다. 방금 뭐라고 했지?” “아무 말도.....” 짹! “뭐라고 했지?” “선생님. 그게 아니.....” 짹! “선생님. 잘못했어요. 제가.....” 작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한 대씩 따귀를 맞을 때마다 인호는 휘청, 휘청, 조금씩, 조금씩 밀려났다.’ 결국 인호가 ‘씨팔’이라 했음을 인정하자, 답임은 ‘뺨을 겨냥하지도 않았다. 인호는 쓰레기통에 몸을 기댄 채 두팔 사이로 얼굴을 집어넣고 무작정 얻어맞았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학교의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답임은 말한다. “한 장이라도 백지가 나온다면 하나 하나 주인을 찾아내겠다. 누가 백지를 냈는지 밝혀내겠다. 만약 끝내 한 마디도 적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다.” 정의나 교육이란 말은 없어진 지 오래고, 학생을 폭력적 방법으로 쥐어짤 생각만 하는 선생의 모습.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목적이 좋다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한편, 주인공의 이모인 교사는 ‘비혼모’로 아이도 키우며, 클럽에서 노래도 한다. 누군가가 올린 그녀의 사진(아이를 낳은 뒤와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든 모습)은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알려진다. 교사는 당연히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게 되고, ‘교실에 안 들어오면 교생 실습 마친 걸로 해주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꾀꾀하게, “수업 참관은 교생의 정당한 권리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서 교문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된다.

한편, 누군가가 위에서 인호가 맞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한다. 어떤 이유인지, 체육

선생은 ‘쭈그리고 앉아서 손 머리’를 시키고 운동장을 돌게 한다. ‘비위를 잘만 맞추면...(중략)...노닥거릴 수 있지만, 거슬렀다간...(중략)...고생을 하게 된다’는 체육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 “왜, 너도 핸드폰으로 찍고 싶어? 체육이 무식하게 기합 주는 거 찍어서 기념으로 간직할래?... (생략)” 많은 사람들은 ‘학생이 교사의 폭력을 찍는 것’을 패륜이라 말한다. 모두가 평등한 오늘날, 반인권적 범죄를 신고한다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는가.

결국 어떤 아이가 신문사 자유게시판에 모든 사건을 폭로하는 글을 올린다. 취재를 하거나 경찰이 오진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교무실에 가서 항의를 하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평소에 깔끔해 보이던 선생은 헝클어진 머리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를 입고서 묻는다. “너, 학교 그만 다니고 싶어?” 결국, 우리의 주인공은 대답한다. “누가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우리들의 스캔들’이 갖는 의미는 학교의 폭력을 조목조목 집어냈다는 데 있다. 스캔들은 하나가 아니다. 따귀를 때린 것도, 운동장에서 기합을 준 것도, 교생의 수업 참관을 방해한 모든 것이 ‘우리들의 스캔들’인 것이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인터넷이 스캔들을 전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시대가 왔는데도 “학교는 참, 고집불통이다”라고 한다. 서기 이전 년대를 살아가는 중고딩들의 하소연이 이삼십 년 전과 같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지만 작가는 희망을 보고 있다. ‘작가의 말’ 일부를 실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두발자유화와 체벌금지를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학생도 있고,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인터넷카페도 있을 정도니까. 학교비리에 대한 의혹을 풀겠다며 청와대 게시판을 두드리는 학생마저 있으니까.

맞다.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느라, 씩씩하게 곤욕을 치르는 선생님도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배짱도 좋으시다. 아무래도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할 모양이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드러나지도 않은 것을 갖고 까발리게 한다는 것은 범죄다. “학교는 그럴 능력이 있다” — 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 학교가 학생간의 폭력이라던가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할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인 선언

(출처 : <http://cafe.naver.com/youth119>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들)

경찰에 의해 온 몸이 들러 끌려나오는 노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그들의 절규가 가슴에 깊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나올 만큼 잘못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함께 저항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힘 없는 사람들이 짓밟히는 현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니 힘있는 자들의 간사한 거짓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노무현대통령님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지옥으로 만들려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싸구려 사기극에 속을 수 없기에, 힘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은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라고 외칩니다.

비정규직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그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악덕기업 이랜드가 있습니다. 하루10시간 동안 서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차별을 받던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버려졌다, 버랑 끝에 선 노동자들은 계산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은 이미지관리를 위한 거짓말과 협박만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경찰특공대와 전투경찰 그리고 이랜드그룹이 고용한 용역강패들이 평화롭던 농성장을 쳐들어와 노동자들의 온몸을 들어 쇠창살차에 가둬 경찰서로 끌고 가는 폭력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부도 법원도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라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텐데,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차별받는 일터에서 벌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이라고하고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협박만을 일삼는 건 힘 있는 기업의 편을 드는 일이 아닙니까? 경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농성 매장을 퐁퐁 둘러싸고 불법이

니 나와라, 안오면 쳐들어간다면서 협박을 하더니, 결국 이랜드그룹이 고용한 강패들과 함께 농성장으로 쳐들어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조폭이 하는 짓과 뭐가 다른가요? 법원도 인권이고 노동권이고 다 내팽개치고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파업을 하거나 현수막을 걸면 무지막지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못된 짓을 해서 고발해도 코방귀도 끼지 않더니, 파업을 하니깐 불법이라고 하네요 노동자는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모든 폭력과 억압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공권력이라면서 왜 힘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부당한 횡포를 휘두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들의 편에 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공권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야 하며, 힘있는 자들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회는 청소년의 인권을 외면한 채 미성숙함을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을 정당화 시킵

니다. 우리에게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지는 커녕 우리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와 법과 기업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권리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함부로 결정되고 그래서 힘 없는 사람들은 제한된 권리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인간으로써의 권리를 누릴수 있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본적인 내용도 이사회와 정부는 외면하는 건가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힘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과 폭력을 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공권력이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청소년들의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고 존중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보험처리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청소년이 아닌 노동자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사기단이 만들어낸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비정규직으로서 차별과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비정규직이 되어 차별받는 세상에 살기 싫고, 살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랜드그룹이 아무리 할인을 해줘도, 사은품과 할인쿠폰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회적 약자들과 우리의 미래마저 짓밟는 기업이 파는 상품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주위 친구, 가족들과도 이랜드불매운동에 함께할 것 입니다. 또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의 부당함을 친구들에게 알리며 공권력이 진정한 공권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외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지옥으로 만드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없애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랜드그룹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랜드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죄하며 폭력을 중단하고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법원은 노동권을 짓밟는 이랜드가처분 판결을 철회 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에 외칩니다,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모든 부당한 차별과 폭력을 중단하라고!



▲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정열의 카트라이더'. <http://cartrider.jinbo.net>

그들의 연애를 허하라

#1. 한 2년전이었나? 고딩쯤으로 보이는, 교복 입은 남자가 버스에서 서로 눈이 맞아서 같이 내려서는 손을 잡고 열라 뛰는 - 물론 초상그리러한 표정으로 - 장면이 지나가며, '사랑도 학생의 본분이다'라는 카피가 깔리던 광고가 있었다. 처음 봤을 땐 무슨 청소년단체에서 광고를 내었나, 아님 무슨 TV드라마예고인가, 했지만 결론은 웹 교복광고.

#2. 고등학생 아무개 양은 한살 위 남자 대학생과 연애를 하고 있다. 수능을 앞둔 고3이라 만날 시간도, 함께 있을 여유도 부족하지만, 그녀는 우주를 정복한 기분이다. 그녀가 평소같지 않음을 직감한 그녀의 친구들, 쉬는시간마다 모여서는 그녀에게 우주를 안겨다준 그자에 대해 묻는다. "어느 학교 다녀?" "OO대학교..." "오-명문대생이네! 좋다!"

#2-1. 아무개 교사는 '실력 있는 교사'로 꼽힌다. 아마 시험 대비를 잘 시키기 때문인 것 같다. 그는 수업시간에, 이렇게 말한다. "혹시 연애하는 사람 있나? 만약 있다면 정신 나간 거지. 지금이 때가 어느 땐데 연애질이야? 그런 건 대학 가서 해. 대학 가면 좋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뭐가 더 중요한지 정신 못 차리지? 밤을 새서 공부해도 모자랄 판이야. 밤을 새서라도 공부한 게 아니면 줄 자격도 없고, 좋은 대학 꿈꿀 자격도 없어." 몇몇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그 교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실력이 있잖아."

#2-2. 학교에서 속이 상한 채로 집에 돌아온 아무개양. 식탁에 앉아 과일일을 먹으며 어머니와 대화를 한다. 신변잡기적인 화제에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딸의 연애 얘기로 옮겨간다. "너, 그러면 개랑 막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그러냐?" "응." "어린 것들이 사랑은 무슨....." 어머니는 코웃음을 친다. 아무개양은 '그래도 당장 헤어지라고 안한 게 어디냐며 다행으로 생각한다.

#2-3. 아무개 양와 연애하고 있는 아무개 군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연애 사실을 밝힌다. 그의 친구들의 첫 반응은 물론 "예쁘냐?"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몇 살이냐?"다. "고3이야."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굳는다. "이런 미친 새끼, 어디 건드릴 애가 없어서 고3을 건드리냐?" "왜?" "개도 공부해야지 미친놈아 - 너 때문에 재수하거나 지방잡대 가면 니가 책임질거냐?"

#3. 과연 고딩의 연애는, 사랑은 잘못된 것일까? 정말? 고딩은 공부만 해야 옳은가? 또는, 사랑을 알기엔 너무 어린 나이인가?



#3-1. 근데 이게 있다. 연애를 한다고 해서 '입시 연습'을 못하게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요는, 연애와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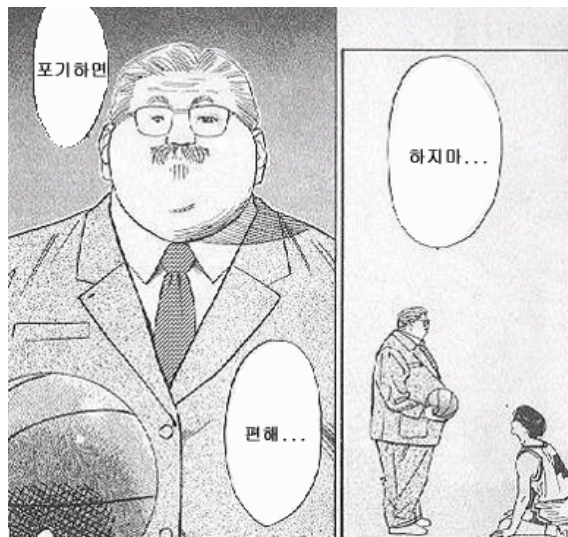
적은 사실 많은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큰 함수관계는 없다는 얘기. 달리 말하면, Case by case란 얘기다.

#3-2. 또 하나,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린 사랑이야기 '춘향전'의 성춘향도 사실 10대다. 그 유교적 관습이 전 국토를 강타하고 전 국민을 지배했던 조선시대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훨씬 개방화되고 자유로워진 현대에 와서야 두말 할 나위도 없지 않은가.

#3-3. 학벌이 밥 먹여주는 학벌사회에서는, '학벌 획득'이 그 어떤 것에도 우선하게 된다. 학벌이 최고가치가 되다 보니, 학벌 획득을 위한 철저한 몸부림만이 '학생의 본분'으로 인식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딴짓', '탈선', '빠져선', '게으름'으로 통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것은 대학 입학 후로 유예되고 만다. 대학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중딩, 고딩 등의 청소년들은 '어린 것' 취급을 받게 된다 - '아직 입시도 치르지 않은 미성숙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럼 대학은 유토피아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십라 닦였다!'를 외치게 된다.

#4.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자유'일 뿐이다. 아주 소박한 소망 아닌가. 굳이 '학벌 카르텔 붕괴'나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같은, 전문가적이고 복잡한 것들을 꼬집어내지 않더라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자유 아닌가.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신분상으로 아직 안 된다'라고 가로막는 건 불합리하다. 이건 무슨 카스트제도도 아니고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mirr]



◀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마다, 오승희 편집마감이 다가올 때마다, 내 컷가에 안 감독님이 속삭인다.
"포기하면 편해... 하지만..."

아,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그러나 어쨌건 오승희 편집은 기한 안에 해내야 하고, 글을 주기로 해놓고 안 주는 사람들을 독촉하며, 여백을 맞춰가며, 밤은 깊어간다.

- 어느 오승희 편집진의 메모

< 광고 1 >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오답 승리의 희망은 전주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소년인권 모임 나르샤에서 내는 신문입니다. 나르샤카페 놀러오세요~

<http://cafe.daum.net/jbhumanrights>

< 광고 2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가버렸다. 경쟁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성적으로 평가당하지 않아도, '같은 공부'를 강요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하지만 쓸쓸한 곳으로.

(그림 출처 : 박철권의 『시사 뒷북』)

“같은곳에서 각기 다른재능을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가지만 배우고있었어. '대학가는법'. 슬펐어. ... 난 평범한 여중생일 뿐이야. 노래부르길 좋아하고, 그림그리길 좋아하고, 수다떨길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놀기를 좋아하는, 하지만 사회는 내게그걸 바라지않아. 같은머리 같은옷 그리고 같은공부...”

- 2007년 자살한 청소년의 유서에서

입시경쟁교육. 다양한 가능성들을 발전시키고 창조해내는 교육이 아니라, 길들이고 획일화시키고 짓누르고 경쟁시키고 차별하기 위한 교육. 우리들을 죽고 상처받게 하는 교육.

지긋지긋한 학벌주의도 입시경쟁도 이제 없애버립시다. 입시경쟁폐지와 대학평준화는 비현실적인 꿈이 아닙니다. 현실화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실현시킬 과제입니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9월 20일 출범합니다. 운동본부의 준비위원으로 참여해주세요. (홈페이지 참고)

<http://edu4all.kr> / edu4all@jinbo.net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준)

<인사말>

길었던 5호 편집을 마쳤습니다. 글은 안 들어오지 편집은 해야 하지 돈은 없지 여백은 늘려야 하지 테두리 디자인 바뀌서 노가다하지, 고생 많은 5호였습니다. 마감 넘긴 인간들 다 기억하고 있어 - r /

청소년자유언론 「오답 승리의 희망」, “오승희”, “승희야~”라고 불러주세요. 자매지 「청소년의 눈으로」가 있습니다. /

한겨레결체를 씁니다. 맑은고딕, 윤체 등은 들러리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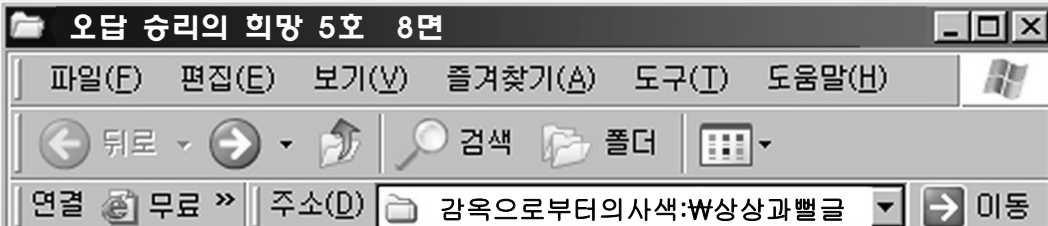
오승희는 2006년에 1호가 발간되어서 어느새 5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에 4번 내고 있구요. /

검열 없는 신문을 추구합니다. 청소년들의 투고를 받아서 만들구요. 지면 부족할 땐 못 신기도 하지만, 글은 많이들 주십시오. /

아, 책임회피용 멘트를 빼먹을 뻔했군요. “외부 필자의 글(대부분)은 오승희 편집진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오승희 사이트 <http://cantabile.mireene.com/>

지난호도 보고 **돈** 좀 주세요.



어떤 학교로부터의 편지 1부 <성채> 1

이제부터 연재될 장편의 편지는 바다에서 우연히 주운 심각하게 파손되어 알아볼 수 없는 것을 제 나름의 복구를 통해 살려낸 것입니다.(복구과정에서 어색하게 누락된 부분은 제 나름의 해석으로 뺐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해석에 대해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실 분은 오승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하겠습니다. 본문 부분은 '성채' '계단' '문어' 3가지 부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비교적 읽기 편한 '성채' 부분을 먼저 연재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전달될 이야기는 학교라는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읽는 분이 사실로 생각하시든 거짓으로 생각하시든 상관없지만, 내용에 대해 공감하기보다는 한걸음 떨어져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를 바라기에 학교의 이름 등은 굳이 적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의 삶의 문제를 바꿔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느 학교의 학생이자 서기로부터.

본론에 앞서 학교를 뭐라 설명하는 것이 좋은가? 이 편지의 의도된 목적이 그러하듯 학교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의 이름을 과거의 어떤 사건을 본따 '성채'라고 하겠다. 이 이름은 상황에 따라서 '계단'이나 '문어' 혹은 'A'라고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성채학교라고 불릴 때의 중요한 사건들은 수없이 많았겠지만 편지를 적고 있는 나에게 중요한 일은 '해방 11월'이라 불렀던 그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낳은 사건이다.

어느 적당히 높은 산. 주변이 언덕으로 둘러싸인 곳에 성채같이 생긴 학교 하나가 버티고 서 있었다. 이 학교로 말할 것 같으면 입시성적도 최고, 비리액수도 최고인 학교로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물론 교사의 이야기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딱 닫혀있는 (게다가 건물도 기숙사제로 구성되어 닫혀있다.) 공간이다.

그 해방 11월이 일어나던 해의 봄. 나는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남녀공학이라 들었던 것과는 달리 남학교와 여학교가 다른 건물에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나는 그 당시의 행복보다는 그저 미래의 행복만을 쫓기에 급급했고, 입학식이 거행되던 운동장의 군대식 사열 또한 그저 '주어진' 삶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렇다고 아주 즐기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 지금 생각해보면 어중간하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즐기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 조회는 매우 지루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 조회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만들어 깊은 동질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참여해야만 했던 조회에서는 그 누구도 그 조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생각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비판할 수도 없었다. 아주 조용하지도 않게 간간히 교사들이 눈감아주는 수준 안에서의 떠드는 소리들이 몇 차례 들려오고 반 배경과 함께 조회는 끝났다.

교실에는 교사가 먼저 와 있었는데, 학교의 살벌한 분위기를 중화시키려는 듯 꽤나 점잖은 모습과 호감이 가는 약간 높은 톤의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앞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령했다. 교장의 강압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어조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자 학생들은 꽤 좋아하는 듯 하였다.

그렇게 그 길었던 학교가 시작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표절만땅]